‘한글염불의례’ 대중화된다

교육원 관련교육에 관한 령 입법예고
행자교육 기본교육과정서 교육 예정

한글의식 집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운데,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이 새로 출가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행자교육 및 기본교육기관에서 한글염불의례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원은 최근 ‘한글염불의례교육에 관한 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한글염불의례교육에 관한 령’은 새로 출가하는 스님들에게 한글염불의례를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한글의례 일상화를 위한 첫 시작이기도 하다. 법령은 행자교육과정과 승가대학, 기본선원 등 기본교육과정에서 종단에서 편찬한 한글통일법요집 또는 종단의례위원회가 정한 한글염불의례를 가르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행자교육에서는 예불과, 반야심경 발원문, 천수경, 사시예불, 축원을, 기본교육기관에서는 천도의례, 봉송의례, 장례의례 등을 순차적 교육한다. 신설된 염불교육과정은 5급과 4급 승가고시에도 반영된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원활한 교육을 위해 염불의례교육을 담당할 교수를 위촉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자와 학인 스님들을 지도할 염불의례교수에 대한 위촉 및 지도, 연수 등은 염불의례교육위원회와 염불교육도감이 담당한다.

사실 한글의례의 필요성은 이미 1970년부터 제기돼 왔다.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한문염불을 외우기보다 한글로 번역해 뜻을 제대로 알리자는 취지에서 의례와 경전 등이 한글로 번역됐다. 불교 현대화와 대중화에 뜻을 둔 여러 스님들이 중심이 돼 한글로 된 예불문과 반야심경, 천수경 등을 보급하려고 애썼지만 한문염불의례 전통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종단에서도 포교원을 중심으로 한글통일법요집을 출간, 통일된 한글의식을 봉행하려고 노력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원이 추진하고 있는 ‘한글염불의례교육에 관한 령’ 제정은 조계종의 한글의식 대중화에 단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이 주체가 돼 출가자를 대상으로 한글염불의례교육을 시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최근 종단은 5대 결사의 일환으로 모든 법회 때마다 삼귀의, 반야심경을 한글로 봉독하고, 중앙종무기관 종사자들은 매일 조계종 표준금강경을 한글본을 독송하면서 한글의례를 일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조계종의 의례와 의식을 통일화할 의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한극의식 집전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향후 종단이 한글로된 표준의례를 제정, 보급한다면 한글염불의례 대중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출가하는 스님들에게 한글염불의례를 교육하자는 이번 법령은 종단안팎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조계종 교육위원회(위원장 법안스님)도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한글염불의례 교육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스님들은 “신도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글염불의례를 하자는 요구가 많았고 실제 한글의식을 집전하고 있는 사찰은 포교성과도 좋다”며 “일선에서 활동할 스님부터 한글의식을 공부해 보급한다면 한글염불의례를 빠르게 대중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한글염불의례에 필요한 교재를 마련하는 것이다. 산재한 한글의식집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 가르칠지에 대한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한글염불의례 교육시행에 앞서 각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교재가 마련돼야 한다”며 “종단의 의례위원회와 교육원이 논의를 거쳐 전국 사찰에 보급할 표준 의례집을 조속히 발간한다면, 승가교육기관에서 한글염불의례교육이 빠르게 정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경산 선본사 주지 향적스님이 자비나눔 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남해 보리암 주지 능원스님은 논산 군법당 건립지원금 3000만원을 쾌척했다.

‘자비나눔으로 훈훈한 세상’

동국대에 … 승가교육기금으로 … 군포교에 보시

일본 지진피해 지원 및 군법당 후원불사에 동참하려는 자비나눔이 잇따르고 있다.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은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했다. 성문스님은 아름다운동행에 일본지진피해 지원활동 및 군법당 건립 지원기금으로 2000만원을 전달했다.

같은 날 경산 선본사와 남해 보리암, 서울 호압사도 자비나눔 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선본사 주지 향적스님은 일본 지진피해 활동 기금 2000만원과 승가교육진흥기금 1000만원을, 보리암 주지 능원스님은 논산 군법당 건립 지원기금으로 3000만원을, 호압사 주지 정묵스님은 일본 지진피해 지원활동 기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

대구 금용사 혜선스님이 지난 17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종)에 1000만원의 장학금을 쾌척했다. 스님의 이번 후원은 지난 2007년 경주캠퍼스 백주년 기념관 건립기금으로 1000만원을 후원하고, 2010년 장학금 1000만원을 후원한데 이어 3번째이다. 현재 학교에서는 스님의 법명을 따 혜선장학회를 설립, 불교인재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불기 2555년 불자대상 수상자인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이 불자대상 상금 전액(500만원)을 육군훈련소 신축법당 불사 성금으로 쾌척했다. 지난 11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에 성금을 기탁한 김상기 육참총장은 “종단적이고 국가적인 불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작은 정성을 냈다”며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불사가 원만성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 청계사와 서울 승가사가 자비나눔 및 승가교육진흥 기금을 각각 전달했다.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스님)는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청계사가 전달한 기금은 대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제를 위한 기금 1000만원과 승가교육진흥 기금 1000만원이다.

더불어 경주 분황사(주지 종우스님)와 경주 기림사(주지 종성스님)가 승가교육진흥 기금으로 내놓은 500만원과 30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서울 승가사(주지 정호스님)도 일본 위령제를 위한 자비나눔 기금 1000만원과 승가교육진흥 기금 500만원을 각각 전했다.

김하영 장영섭 어현경 홍다영 기자

본·말사 주지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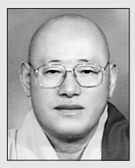
5월18일 종무회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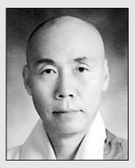
진협스님
서울 자룡사

선중스님
시흥 대각사

무념스님
인천 용해사

현관스님
옥천 용암사


정암스님
강릉 법왕사


임하스님
부여 대조사

성만스님
청양 화정사

청용스님
서산 해월암

도륜스님
경산 인흥사

임대스님
포항 관음사

은산스님
거창 행복한절

선의스님
거제 내원암

석호스님
김해 장유암

무영스님
창녕 청련사

자명스님
안동 보광사

기원학사 부지 ‘수익용전환’

승가학원 이사회서 결의

임대업자의 불법점유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 되찾은 중앙승가대 안암동 기원학사 부지가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된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91차 이사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기원학사 부지 용도변경을 안건을 상정한 이날 회의에서 이사회는 현재 교육용 재산인 부지를 도시계획해제 등 용도변경을 통해 수익용으로 전환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원학사 부지가 수익용으로 전환될 경우, 중앙승가대는 재정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10학년도 자금운영 결산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해 111억여 원의 법인 및 학교의 결산 내역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기타 안건으로 대학 도서관 건립현황 및 대학현안 보고 등이 상정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구독신청 (02)730-4488
광고문의 (02)730-4490
한장의 불교신문
한사람의 포교사

5월26일, 불교중흥토론회
‘평화통일과 불교’ 주제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가 매달 개최하고 있는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가 오는 25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다섯 번째를 맞고 있는 이번 대토론회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발제자로 참석해 ‘한반도 평화통일문제와 한국불교’에 대해 고찰한다.

토론자로는 대승사 주지 학담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스님,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 이승환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현장에서

예의 없는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법회 내내 합장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집권 여당을 대표해 참석한 원내대표가 불교의 기본예절인 합장을 하지 않은 태도는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은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와는 달리 이날 법회에 참석한 다른 정치인들은 합장 반배의 예를 표했다. 합장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황 원내대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비록 개인적인 종교가 있더라도 불교 최대 명절의 봉축 법요식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종단에서 공식적인 초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참석한 자리였다. 일 년에 한 번 뿐인 행사에 참석해 예의에 어긋난 태도를 보인 것은 옳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불교행사에서의 ‘합장’은 지극히 기본적인 예의임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과연 ‘최소한의 양식’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황우여 원내대표는 종교편향 발언을 일삼은 인물로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1월 법조계 기독교 신자모임에서 ‘가능하면 모든 대법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길 바란다’는 종교 편향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사실 황 원내대표는 그동안 노골적으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지 않고 노골적인 유착에 앞장서 비판을 받아 왔다.

자신을 선출해준 국회의원과 지역주민 가운데 불자 등 이웃종교인이 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종헌종법 개선을 위하여

종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종헌종법은 종단이 지향하는 사상과 조직구성, 운영원리, 종도들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법규범입니다. 종헌종법은 1962년 최초의 제정 이래 1994년을 기점으로 당시 민주적 개혁과 종도의 권리를 자각하면서 일부의 종헌과 많은 종법들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법령은 법체계와 내용이 상충되고 미비하여 종무행정을 수행하고 종도들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어 달리 해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또한 현시점에서 우리 종단의 수행가풍이나 청규, 율장 등을 근거한 수행자적이고, 불교적인 법규범으로 종헌종법을 바꿔 나가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며 아울러 종단을 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현실적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종헌·종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앙종회는 종헌종법 체계를 바로잡고, 나아가 종헌종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검토를 통해 입법미비된 종헌종법 제개정안을 성안하고자 금년 3월 종회에서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종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하오니 유익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기2555(2011)년 5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장 법 안

● 의견 수렴 주요 범위
- 종단 조직에 관한 의견
- 승려의 의무와 권리, 분한, 법계 등 기본권에 대한 의견
- 사찰 또는 법인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의견
- 각종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
- 기타 법령에 관한 의견

● 의견 수렴 기한 및 방법
- 의견 제출 기한 : 2011년 6월 20일(월)
-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E-Mail(hans@buddhism.or.kr)
- 문의처 : 중앙종회사무처(담당자 류창하)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 Tel : 02-2011-1865, Fax : 02-733-8286